엑스포 오늘 결정…'코리아 원팀' 파리서 마지막 총력전

한 총리 주도 정·재계 내부회의 막판 전방위 유치전

여야도 퍼포먼스·거리 응원전 참여 등 유치 기원행사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정부와 재계, 부산시 등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마지막까지 분초를 다투는 총력 유치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파리에 도착해 늦은 밤까지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 활동과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한 총리를 비롯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전날 밤 내부 회의를 통해 이날과 투표일인 28일까지 이틀간의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어 투표 하루 전인 이날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 세미나와 환영 행사(리셉션), 만찬 행사, 양자 면담 등 일정을 밤까지 촘촘하게 진행한다. 방 장관과 오 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의 향방을 가를 핵심 표밭 국가를 대상으로 최종 교섭을 펼친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고히 단속하고,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나라 중 한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설득해 표를 당겨오는 양대 전략에 남은 이틀간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도 27일 부산의 2030 엑스포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참석자들은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부산 엑스포 화이팅"을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부산만이 가진 다양한 매력, 역동성, 무궁한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기회가 꼭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6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끝까지 부산 개최의 염원을 모아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 역시 빛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는 대한민국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미래 과제를 주도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좌초시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민, 국민과 함께 부산의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 시당은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가 열리는 28일 오후 10시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멀티스크린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 엑스포 유치 응원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거리 응원전에는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당원, 시민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유치 경쟁국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청하며 엑스포 부산 유치를 염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결의대회에서 부산시민들이 엑스포 부산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혁신위 '용퇴론' 공식 안건 의결 할 듯

30일 회의…지도부 " 개인선택 문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용퇴론을 오는 30일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2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용퇴론을 둘러싼 혁신위 내부 갈등은 잘 정리됐고, 30일 회의에서 용퇴론 안건을 의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혁신 위원들은 용퇴론 안건을 공식 의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과 부딪혀 일부 위원 사퇴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후 혁신위는 사퇴설을 부인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혁신위가 '용퇴론' 공식 의결을 통해 당 주류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위 결정의 효력 범위에 선을 그었다.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최고위에서 공식 의결할 성질의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년 비례 50% 할당 등 혁신위가 제안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나 총선기획단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공관위에서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주류는 총선이 아직 넉 달 여나 남은 상황에서 혁신위의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고 빠르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尹 "R&D 체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투자로 새로운 도약 이뤄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체계에 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영국 국빈방문 당시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R&D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며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미일과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1기 위원의 지난 한 해 활동을 치하하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와 자문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지지율 2.5%P 상승 38.1%…2주 연속 올라

리얼미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 후반대를 기록했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11월 4주) 18세 이상 2505명 대상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p) 상승한 38.1%였다.

10월 4주부터 4주 연속 30% 중반대(35.7%→36.8%→34.7%→35.6%)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 상승(34.7%→35.6%→38.1%)하며 10월 1주(37.7%) 이후 약 두 달 만에 30% 후반대로 올라섰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5%p), 부산·울산·경남(7.2%p), 광주·전라(6.1%p)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대구·경북(3.0%p), 서울(2.1%p)에서도 상승했다.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소폭 하락(1.9%p)했다. 연령별로는 60대(4.8%p), 30대(3.6%p), 50대(3.2%p), 20대(1.5%p)에서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4.0%p)과 진보층(2.0%p)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